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종로구 한옥체험관 상촌재

시간의 켜를 담은 공공한옥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1(옥인동 19-16)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66.7m²
건축면적	138.55m²
연면적	138.55m²
규모	지상 1층
높이	6.8m
건폐율	29.69%
용적률	29.69%
구조	한식목구조
설계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설계담당	양기란(PM), 류종미, 남기정, 임굉수
시공	소나무종합건설(주), (주)동방문화유산
기계·전기설계	(주)하늘천, 한일전기기술사사무소
설계기간	2014. 12. ~ 2015. 6.
시공기간	2015. 8. ~ 2017. 6.
공사비	약 13억 원
건축주	종로구청

상촌재 서측 전경과 북악산 자락

©송유섭

상촌재 행랑채와 태문간

상촌재는
기존 한옥에 대한
실측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설계공모가 공고된
사례이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신축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컨텍스트를
미리 기획설계단계에서
조사하여 공모 시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송우서

사랑마당 풍경

©송유선

©건축사사무소 강희제

©건축사사무소 강희제

상 **내담과 중문으로 나누어지는 안마당과 사랑마당**
하·좌 **재담연희극 공연이 열리는 사랑마당의 모습**
하·우 **열린 누마루에 준비된 전통차 시음 공간**

들어열개문을 활짝 열어 대청과 방을 연결한 대공간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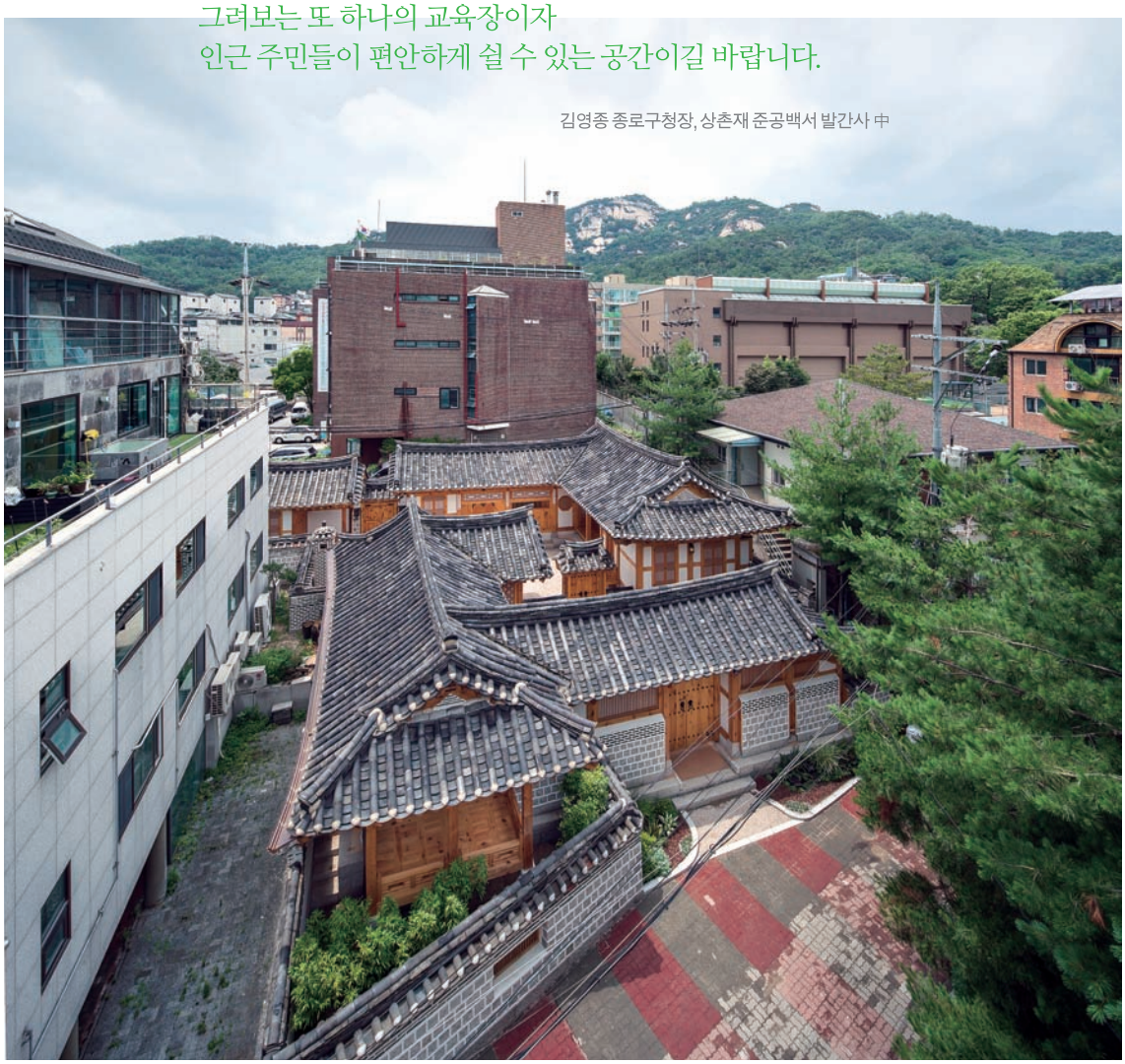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상 **상촌재 안채 대청에 재사용된 기존 한옥의 대량과 종량**
중 **별채에 재사용된 기존 한옥의 기둥**
하 **기둥을 재사용하기 위한 보강과 재치목**

전통 한옥 상촌재에 선조들의 지혜와
소중한 전통문화 그리고 이 마을 고유의
역사성을 담아내어 미래를 이끌어 갈 후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역사를
그려보는 또 하나의 교육장이자
인근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상촌재 준공백서 발간사 中



©송유진

상촌재 동측전경과 인왕산 자락

상촌재는 전통 구들의 구조를 보여주는 등 건물 자체가 완벽한 전시물이며, 한옥을 보여주는 교육자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러 행사를 담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획하고 실현에 옮긴 종로구청의 결단과 실행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상설계에 당선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처럼 훌륭한 현대 한옥을 계획한 건축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마을은 그 역사와 위상을 높이는 또 하나의 명소를 갖게 되었고, 이 마을 주민과 서울 시민들은 또 한 꾸러미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사할 일이고 모두가 기뻐할 집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상촌재 준공백서 中

©송유섭

상　상촌재 서측 전경과 북악산 자락
하　상촌재 동측 전경과 인왕산 자락

1004일간의 상촌재를 열며

설계공모가 시작되고 준공식을 열기까지 3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변경과 수정을 거치면서도 초기 공모안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설계단계에서 발주부서인 관광체육과·건축과와 정통한옥 및 신한옥의 디테일 적용 측면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시공·감리단계에서는 한옥의 미관과 기능성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과정을 거쳤다. 건축주와 시공자 그리고 설계·감리자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에 무사히 개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드린다.

공공한옥을 위한 프로세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건축에 대해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은 한옥을 공공한옥으로 명명하고, 공공기관인 종로구청이 지은 상촌재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서 한옥이기 때문에 특수했던 점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상촌재는 기존 한옥(1960년대)에 대한 실측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설계공모가 공고된 사례이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로 생각되는데, 신축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컨텍스트를 미리 기획설계단계에서 조사하여 공모 시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한옥의 경우는 목구조의 특성상 간이실측을 하고 건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반건물보다도 많은 이해와 소요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상 **상촌재 안채 대청에 재사용된 기존 한옥의 대량과 종량**
중 **별채에 재사용된 기존 한옥의 기둥**
하 **기둥을 재사용하기 위한 보강과 재치목**

아카이브 1. 멸실 한옥의 기록

기존 한옥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멸실되는 한옥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면서 이를 꾸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상촌재는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기존 건축물 해체실측 조사보고서'를 당선 이후 설계단계에서 조사하여 기존 한옥에 대한 아카이브화 및 부재의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종로구에서 신축한 신영동의 한옥자재 창고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어 재활용부재를 보관 후 실제 상촌재에 활용하였다.

아카이브 2. 온돌 전시를 위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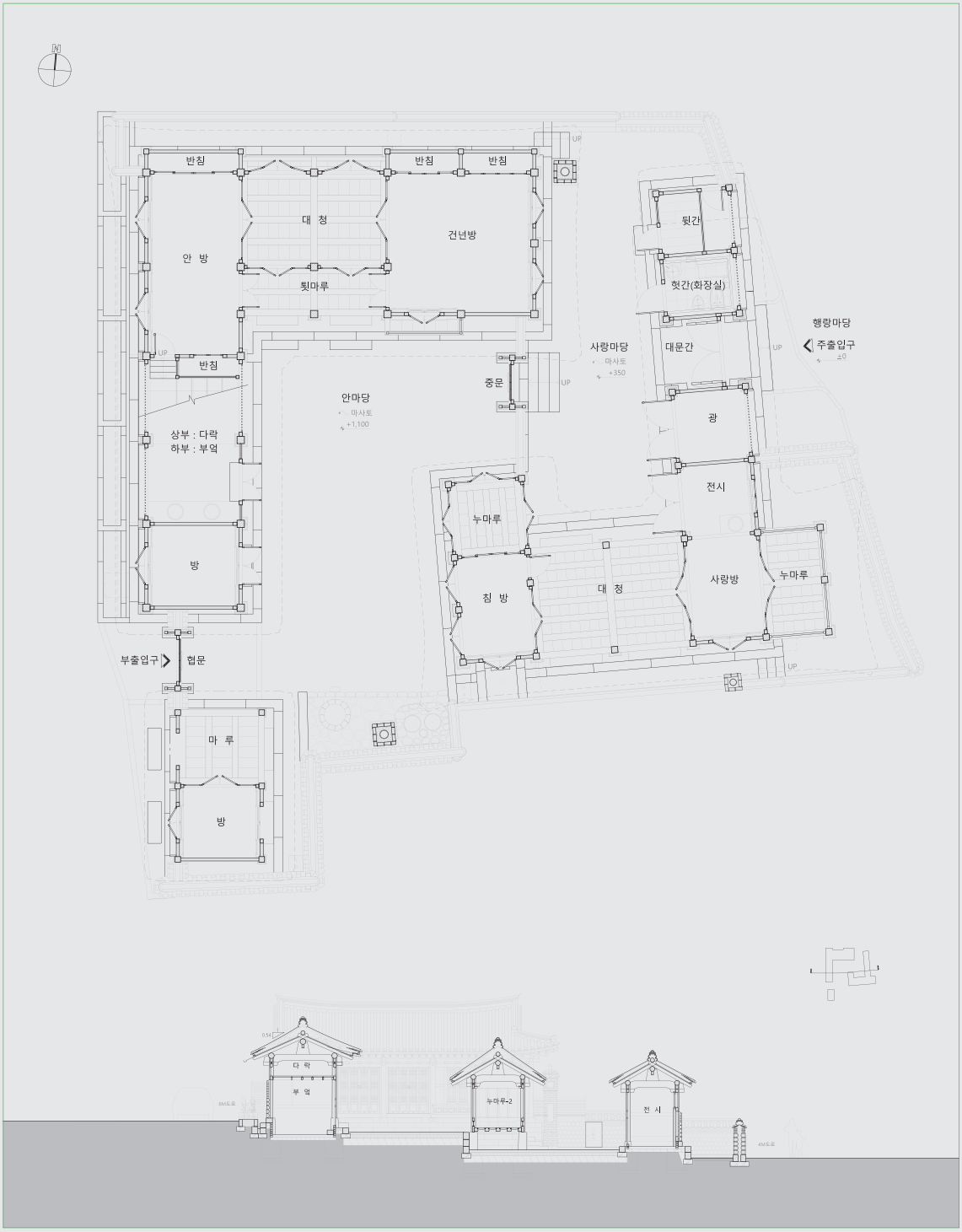
상촌재가 사라져 가는 우수한 온돌문화를 소개하는 곳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온돌전시 및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전통 방식의 온돌,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온돌, 종로구에서 발굴·조사된 온돌유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전시설계에 반영하였다.

아카이브 3. 공공한옥의 건축 과정을 기록

공공한옥으로서의 상촌재를 준공하면서 전체 건축 과정을 '상촌재, 1004일간의 기록'으로 남겼다. 기존 한옥 조사, 해체실측, 재활용부재 수습, 신축 한옥과의 결합, 잔존부재의 존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향후 멸실되는 한옥의 보존과 활용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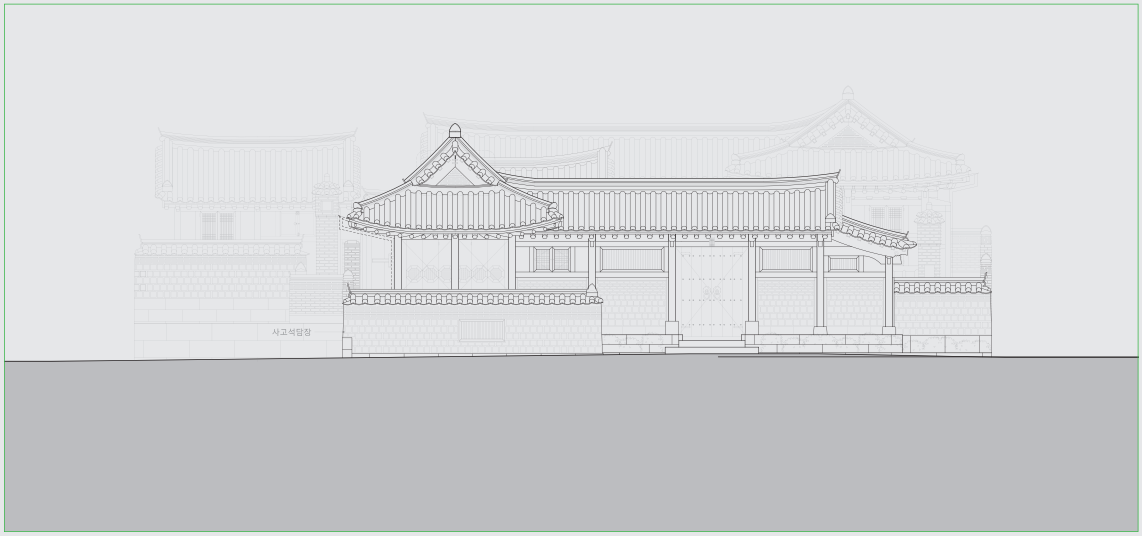
상촌재 건축 과정을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

©건축사사무소 강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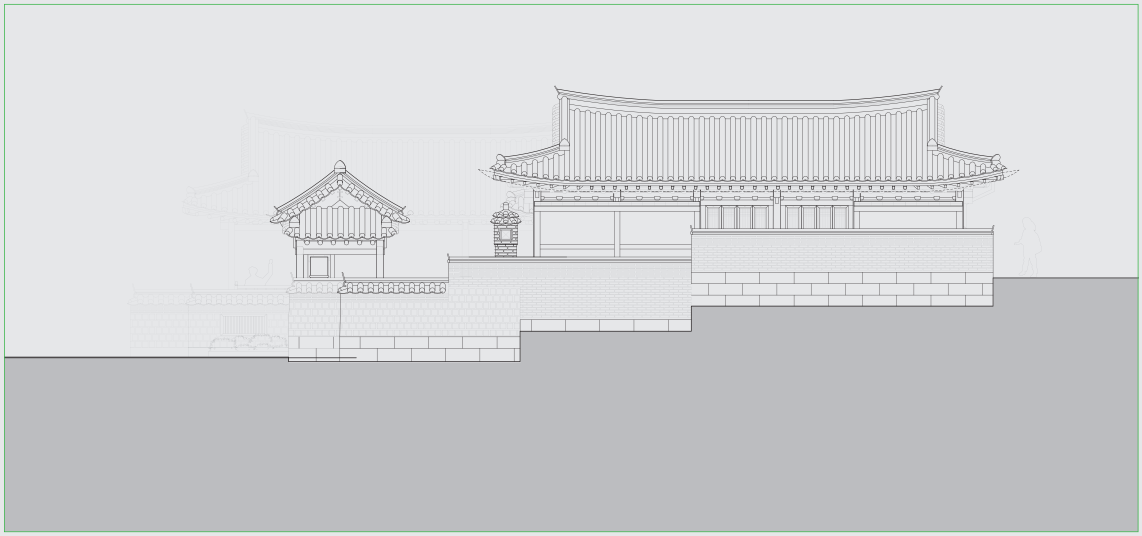
상 **상촌재 평면도**
하 **상촌재 단면도**

©건축사사무소 강희제



상촌재 정면도

©건축사사무소 강희제



상촌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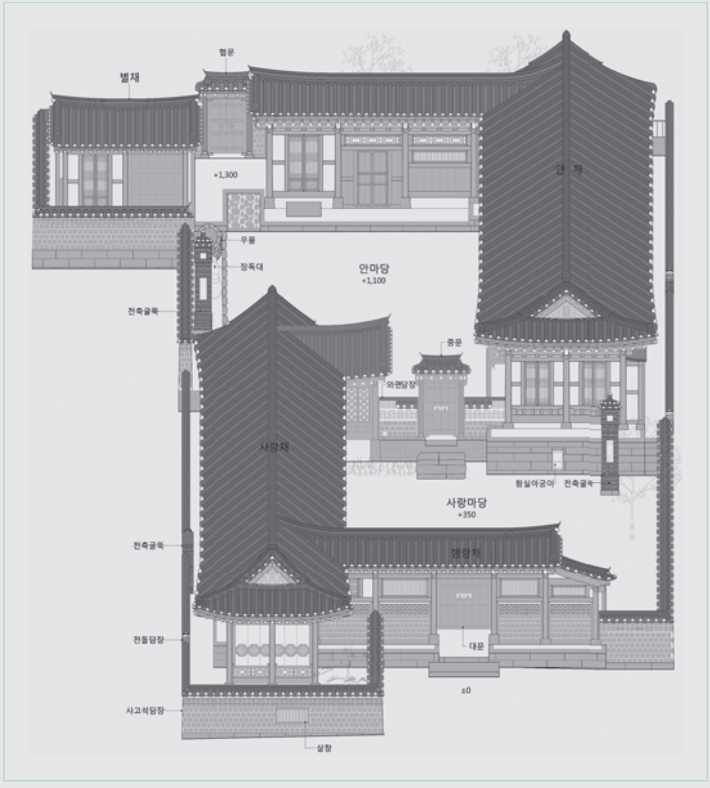
풍경 만들기

세종마을은 조선 초기 왕족들과 사대부들의 택지, 1900년대 조선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 근대 예술인들의 창작현장이 되어 왔다. 현재 이러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바탕으로 개량형 한옥과 골목길들이 고유한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상촌재는 땅의 기억을 존중하며 들어섬으로써 세종마을의 역사적 맥락과 풍경에 어우러지는 가운데 전통 한옥의 생활상을 전할 것이다. 여기서는 건축가로서 1004일 동안 상촌재를 만들어 가며 놓치지 않았던 개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형과 절대방위: 2개의 축

상촌재가 위치한 대지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옥류동천과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백운동천이 흘러가던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다. 대지가 갖고 있던 원래의 축은 이러한 지형이다. 지형의 흐름에 따른 축을 기본에 두고 남향으로 앉은 안채를 두었다. 배치에서 이 2개의 축(지형과 향)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위계를 갖도록 하였다.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도시조직에 대응하는 한옥의 채와 마당

©송유섭

상 상촌재 행랑채와 대문간
중 내담과 중문으로 나누어지는 안마당과 사랑마당
하 사랑마당 풍경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상 재담연희극 공연이 열리는 사랑마당의 모습
하 열린 누마루에 준비된 전통차 시음 공간

도시조직에 대응하는 한옥의 채와 마당

채와 마당은 기능과 땅의 속성에 따라 배치되었다. 지형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계를 가지는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 등 3개의 마당을 만들고, 안채·사랑채·행랑채는 연관된 마당에 열린 구성을 갖는다. 안채는 기존한옥의 축과 형상을 따라 남향의 대청을 가지는 ㄱ자 집으로 계획하고, 사랑채와 행랑채는 가로와 필지에 대응하도록 축을 틀어 방문객들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중문과 내담으로 나뉘어 있지만 누마루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

중성적 해프닝 공간

최근 지어지는 한옥에 대한 경향은 정직함이다. 한옥은 어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하다. 공간의 질서, 주칸의 크기, 처마내밀기, 바닥에서 하인방 높이 등 공간부터 세세한 치수까지 정해 놓은 규범에서 조직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혹은 사진 속의 오래된 한옥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벗어나는 공간과 디테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촌재에서 이러한 공간이 중문과 가까이에 위치한 누마루이다. 대지와 한옥의 중심공간에 중성(中性)적인 공간을 두었다. 채움과 비움, 차단과 확장의 사이에서 모호하고 중성적인 공간이다. 내밀한 8자×8자의 공간으로 인해 다양한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